

장애인 전문 치과 열고 나환자 치료에도 앞장

치과 의사 기창덕 (1924~2000년)

얼마전 장애인의 날에 '동아일보'에서 고(故) 기창덕(奇昌德, 1924~2000년)박사가 장애인을 위한 치과를 열게한 주인공이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4년 전 봄 어느 장애인 교육원 행사에서 서울 서초구청장을 만난 기박사가 장애인 전용 치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장애인들은 이가 썩어 뿌리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입을 벌리는 것에 대해 본능적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을 벌리는 것이 치료의 90%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과정이 어렵다. 자연히 일반 치과에선 장애인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기박사는 또 "장애인의 몸을 묶는 특수 장비가 없으면 치료 도중에 입 안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전용 치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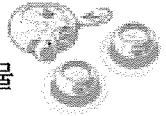
4년동안 5천3백여명 치료

그 결과로 서초구에는 장애인 치과가 생겨 지금 자원봉사 의사들이 돌아가며 진료를 맡고 있다. 1996년 9월 문을 연 이래 지금까지 5천3백 명이 치료를 받았다. 평소 그 분의 학덕을 기려 오기는 했지만, 그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데도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는 새삼스런 감동이었다.

치과 의사 기창덕은 서울 종로구 필운동에서 평생 치과 의사로 일하다 지난 3월 20일 작고했다. 그는 훌륭한 치과 의사로 오래 기억될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그냥 단순한 치과 의사가 아니다. 그는 나환자의 치료에 나섰던 의사이고, 또 장애인 치과를 탄생시켰던 주인공이며, 또 납골당 운동을 솔선했던 치과 의사이기도 하다. 치과 의사로서는 이만해도 훌륭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기창덕의 일생은 의사학자(醫史學者)로서 더 길고도 분명하게 기억될 것이 확실하다. 의사학 또는 의학사는 아주 재미있고도 중요한 과학사의 한 분야이다. 요즘 TV 드라마로 인기를 얻은 '동의보감' (東醫寶鑑)의 주인공 허준(許浚)의 생애와 업적도 따지고 보면 의학사의 한 부분이다. 기창덕은 바로 이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이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그는 그의 대표작을 모두 1995년 한해 동안에 발표했다.

아마 그는 대한의사학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그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1995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책을 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의 작품 셋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 본다.



지난 3월20일 작고한 치과 의사 기창덕(奇昌德/1924~2000년)은 96년 서초구에 장애인 전용 치과를 설립해, 지금까지 5천3백여명의 환자가 자원봉사 의사들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 평소 나환자 치료에도 앞장섰고 남골당운동을 솔선했던 그는 1995년 한해에 3권의 책을 펴냈다. 평생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여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들」 「한국치과의학사」 「한국근대의학교육사」 등 3권의 책을 몰아서 출판한 그는 평생 모은 옛 문헌과 책들을 서울대에 기증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난 훌륭한 의사이다.

첫째로는 조금 대중적인 책으로 「의학·치과의학의 선구자들」(아카데미아, 1995)이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 치의학계의 선구자로서 한국에 온 최초의 서양 치과 의사 한(D. E. Hahn), 최초의 한국인 치과 의사 함석태(咸錫泰)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일본인 치과 의사들이나 처음으로 미국 유학을 갔던 한국 치과 의사 이유경(李有慶) 등도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책에는 현대 치과의학의 개척자들에 대한 소개도 여럿 들어있고, 심지어는 일반 의학 속의 중요 인물 몇에 대한 소개도 있다. 나는 1995년 말 제 28회 '문화부 추천도서'로 이 책을 추천했던 기억이 있다. 치과의학의 역사를 소개하는 대중적인 책은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에 이 책이 아주 반갑게 여겨졌던 까닭이다.

평생모은 자료 3권의 책 출간

그러나 물론 이런 대중적인 책 말고 그의 정말로 귀중한 업적은 「한국치과의학사」(아카데미아, 1995)를 꼽아야 옳을 것이다.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치과의학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놓은 대작이다. 당연히 석기 시대의 치과 또는 치의학 문제는 극히 사소한 증거 밖에 나올 것이 없다. 하지만 고분(古墳)이나

고고학적 발굴에서 이빨 하나라도 발견되어 그에 관한 소개가 있는 논문은 모두 읽어 보고 이를 책 속에 소화한 열정은 그저 놀라울 지경이다. 이 책에는 그야말로 치과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기도 하다. 큰 판형으로 5백1쪽이나 되는 이 책 끝부분에는 심지어 치의학계의 여러 가지 수상(受賞) 기록도 있고, 치과 의료인 단체들의 간단한 역사와 그 역대 임원들의 명단까지 실려 있다. 일단 한국 치과의학의 역사가 거의 완전하게 수집되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역시 같은 해에 출간된 「한국근대의학교육사」(아카데미아, 1995)가 있다. 4백87쪽의 이 책 역시 그 자료의 충실함이 아주 돋보이는 대작이다. 우리나라 의학사의 정리로는 단연 김두중(金斗鍾, 1896~1989년) 교수의 「한국 의학사」와 일본의 삼목영(三木榮: 미키 사카에)의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라는 일본어 대작이 있다. 두 의학사에 대해 기창덕교수는 모두 불만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책을 낸 다음 '한겨레신문' (1995년 12월)에 실린 인터뷰를 보면 그의 불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일본인 미키가 쓴 책은 아무래도 일본인 중심의 잘못된 서술이 많았고, 김두중의 「한국의학사」에는 잘못된 부분이 아주 많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특히 김두중교수



의 책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고쳐 보냈을 때 김 교수가 화를 내는 바람에 자신이 직접 의학사를 써야겠다고 결심했다는 말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미키나 김두종의 의학사 같이 우리나라의 일반 의학사 전부를 훑어보는 저작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대의학 교육의 역사다. 한국 의학사의 아주 좁은 한 부분에 관한 것만을 상세하게 연구하여 정리한 셈이다. 예를 들면 일제 시기 동안 일본의 의과대학에서 공부한 조선 유학생을 전부 이름까지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제 시기에 일본에서 의사가 된 조선 사람은 모두 3백69명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다. 아주 적은 수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된다. 하지만 몇년 전 조사된 일제 시기 일본에서 이공계를 공부하여 대학을 졸업한 조선인은 모두 2백4명 뿐임을 밝혀낸 적이 있다. 이공계 졸업생 수에 비교한다면 의과 졸업생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당시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의학을 공부했거나 이공계를 졸업한 사람 수를 생각한다면,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의학 및 이공계 교육이 얼마나 참담했는가를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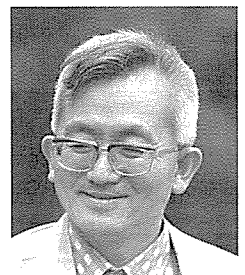
옛 문헌 등 서울대에 4,500점 기증

기창덕은 어느 기자와의 대답에서 자신의 호 소암(素岩)에 대해 “돌대가리”란 뜻이라고 웃으며 풀이한 적이 있다. 그만큼 그는 우직하게 의학사 자료를 찾아내 정리하는데 평생을 바쳤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원래 1944년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로 입학하여 해방되자 서울대 치과대학을 1948년에 졸업하게 된다. 공군 장교로 군을 마치고 그는 1960년부터 1967년까지 가톨릭의대 치과대학 교수를 거쳐 1967년 개업하여 임종 때까지 종로구 필운동에서 치과 의사 노릇을 계속했다. 가톨릭의과대학의 외래 교수라는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는 하루 진료 시간인 9시부터 5시 사이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아침 2시간과 진료를 마친 다음 저녁 4시간을 그의 의학사 연구에 이용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의 의학사 연구와 집필이 이 시간에 이뤄진 셈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그는 일본을 수도 없이 다녔고, 또 나이와는 달리 일찍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을 그리도 많이 다니면서도 그는 한번도 온천에 가지 못했을 정도로 연구에만 전념했다고도 회고했다. 그야말로 “돌대가리”같은 고집으로 말이다.

그의 치과 병원에는 ‘소암 의문회사연구소’(素岩醫文化史研究所)라는 또 하나의 간판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작고하기 꼭 1년 전에 모교 서울대에 귀중한 옛 책과 문헌 등 평생 그가 수집했던 것들을 4천5백점 기증했다. 바로 이 자료가 작년 서울대 의대에 세워진 의학사연구소의 중심자료가 된 셈이다. 이제 ‘소암 의문회사연구소’가 서울대 의대 건물로 옮겨간 셈이다.

그는 생전에 고려 말의 문인 이규보(李奎報)가 남긴 「치통의 노래」를 발견해 소개하면서 이를 아주 기뻐했다. 또 그가 치과적으로 돌본 많은 명사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논평한 일도 있다. 윤보선은 왕진을 너무 자주 요구했고, 김재규는 좋은 인상에 예의도 바르더라는 논평을 기창덕은 남겼다. ①7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